

새로운 변화 대구 교도소

사회의 한 부분 속에서 어둡고 소외된 공간이었던 교도소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도소의 화장실문화개선으로 인하여 달라진 곳이 있어 소개한다.



글. 정상문 / 대구 학원 교도소 소장/

대구교도소 소개

대구교도소는 1971년에 신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으로 이전한 교도소로서 전국의 40여 개 교정시설 중에서 중범수용자 3300명을 수용하고 직원으로 교도관 470여명, 경비교도대원 150여명이 근무하고있고 수용자의 수감생활 중 직업훈련 및 교화를 통하여 사회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다.

우리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에 대한 직업훈련도 병행하여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부 만남의 방과 교도소 내 근무하는 직원들도 여러 동우회를 통한 활동으로 재소자들을 한가족처럼 여기며 어두운 과거를 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교도소의 화장실문화 개선사업

대구교도소에서는 "화장실은 문화의 척도"라는 말과 같이 일반적인 업소 또는 기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2001년도에 교도소 내에 재소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실(방) 400여개에 설치되어있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전면 개조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교도소의 신축 연륜과 같이하여 30여년 동안 직원들이 사용하여 왔던 수세식화장실이 낡고 협소하였던 사무실 화장실 4곳에 대하여 개선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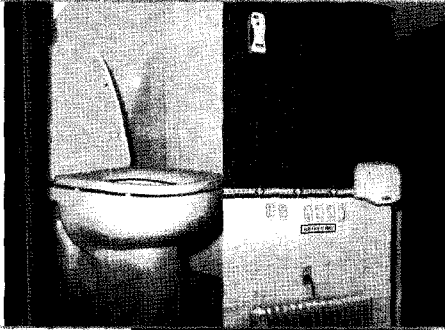
우선적으로 화장실 4곳에 대한 화장실 개선작업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발주 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필요하였으나 책정되어진 예산은 3,400만원에 불과하여 개선사업에 1차적인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전 대구 두류공원 화장실을 개보수 하였다 는 신문 기사를 접하고 대구에 소재한 (주)항기마을사람들(대표 이영호)의 도움으로 기술자문 및 4곳의 화장실 개조작업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우선 기존의 화장실 4곳의 면적이 30여년 전 구 건물시대 때 설치되어 극히 협소한 2곳의 화장실은 4평에서 8평으로 확장 증축하였고 나머지 2곳의 화장실도 1.5평에서 3평으로 화장실 공간을 확대 증축하였다. 그리고 배관, 인테리어, 재료선정, 화장실 내부 첨단 시설 등을 자문을 얻어 개선하여 현대식 화장실로 완성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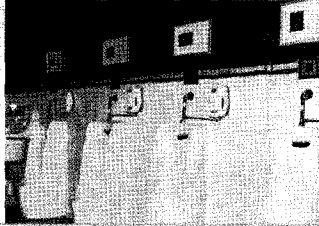
화장실 문화가 개선됨으로 인하여 바뀐점

화장실의 개선으로 인하여 재소자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고 재소자들 역시 개선된 화장실로 인하여 생활태도에 많은 변화를 갖고 의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작은 변화로도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작은 교훈도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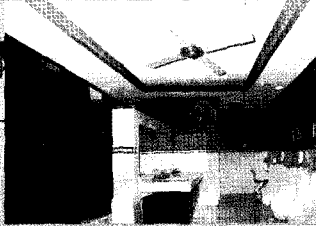
○ 대구교도소 화장실 내의 서양식 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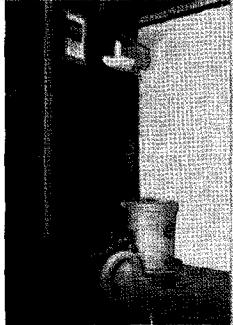
○ 자동센서와 액자용의 소품을 갖춘 쇼변기



○ 남 화장실 내부 전경



○ 대구 교도소내의 동양식 변기



하지만 개선되어진 화장실을 일반 재소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직원과의 면담, 출정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지만 재소자를 만나기 위해 온 가족 등 면회자들이 바뀌어진 화장실을 보고 재소자의 생활환경 등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심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함과 함께 작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화장실문화개선에 대한 조언

혐오장소로 인식되어져 오던 화장실이 개인의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사용하는 사람들 또한 더욱 정갈하고 깨끗이 사용하게 되었고 대구교도소 뿐 아니라 타 교도소도 화장실 개선 비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우리처럼 전문적인 화장실 설비업체의 자문 및 기술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도 쾌적하고 청결한 현대적 시설을 갖춘 화장실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재특기

앞만 보고 달려온 화장실문화개선운동이 이제는 전국의 구석구석 작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화장실과 학교의 화장실, 그리고 이제는 교도소의 화장실까지... 하나의 씨앗이 싹을 틔어 조그만 열매를 맺고 수확의 결실을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해진다. 누구도 예전의 우리가 사용하여 왔던 화장실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화장실이 곧 문화임을 우리모두가 알고있기 때문이 아닐까?